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3년 2월 27일(월) 총 4매		
담당 부서	관광마이스과	담당자	• 관광마이스기반팀장 • 담당자		김봉희 ☎440-4101 박근애 ☎440-4103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해외의료팀장 • 담당자		전희순 ☎440-2736 박은조 ☎440-273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선정

- 웰니스와 의료관광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 3년간 국비 15억 지원 -
- 4개 권역별 컨셉에 맞는 상품개발,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홍보 강화할 것 -

인천이 웰니스와 의료관광을 한 번에, 치유과 회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힐링의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새롭게 실시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매해 5억 원씩 3년간 총 1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문체부는 그간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각각 선정했었지만, 올해부터는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로 통합해 선정했다. ‘치유·회복’이라는 공동목적이 있는 두 분야를 연계해, 코로나19 이후 성장할 의료·웰니스 관광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인천사색(四色)-사색(思索) 쉼표, 인천’이란 주제로 4개의 웰니스·의료 권역을 선정하고, 권역별 컨셉에 맞춘 특화상품 개발과 융복합 기반구축을 통해 웰니스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간다는 시의 구상이 이번 공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8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던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 공들여 온 웰니스관광 사업을 연계하면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할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천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색깔 있는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타깃 마케팅을 강화한다. ▲도심권은 의료·뷰티, ▲송도권은 마이스(MICE), ▲영종권은 휴양·럭셔리, ▲강화옹진권은 숲·자연치유가 중심이다.

또한,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기반을 구축한다. 웰니스와 의료관광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바이오 지역산업(바이오, 헬스케어, 뷰티, 미용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사업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천의 웰니스·의료관광 글로벌 홍보를 강화한다. 웰니스와 의료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 페스타 신규 개최, 인천 의료관광 해외 거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등 의료와 웰니스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의료관광 자원,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공모 선정을 계기로 해외관광객의 입국부터 치료, 웰니스관광과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인천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웰니스관광 사업은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도 웰니스관광지 10개소 및 2022년도 5개소(예비 1개소 포함)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관광지별 웰니스 콘텐츠 개발 및 수용태세 개선을 지원하는 등 인천 특화 웰니스관광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인천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2015년부터 8년간 국비 26억 원을 확보하며 ▲국내 최초 의료관광정보시스템(MTIS) 구축 및 인천 국제공항/인천항에 ▲인천의료관광홍보관 조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해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유치파트너 발굴, 해외환자 입국 시 공항에서 이송(컨시어지)·진료 시 통번역·치료 후 1-day 힐링투어 등의 ▲원스톱 메디컬지원 서비스 구축, ▲다문화권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및 ▲의료낙후국가 환자 치료지원 나눔의료사업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왕산 마리나요트 체험 요트>



<인천의료관광상담>

[관련사진]

인천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색(思索)심표, 인천